



190석 ‘대극장’ 유료 초청공연 고민 깊어진다

공공 공연장 단계별 개방
7월 6일 이후 2단계 확대
거리두기 인한 가용 객석
현행 20% 수준까지 줄어
온라인 생중계 병행 추진

제주지역 공공 공연장의 단계별 개방 계획에 따라 대극장 가용 객석이 소극장 규모로 줄어들면서 유료 공연 방식을 두고 공연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비해 공공시설·공영관광지 재개방 시점을 6월 18일로 늦췄다. 이에 따라 제주도문화회관, 제주아트센터, 서귀포예술의전당 등 공공 공연장 3곳도 이에 맞춘 단계별 개방 계획을 마련했다.

이들 공연장은 6월 18일부터 7월

5일까지 1단계 시범개방에 나선다. 이 시기에는 온라인·무관중 공연 작품에 한해서만 공연장을 쓸 수 있다.

7월 6일부터는 대관이나 자체 기획공연이 가능한 2단계 개방확대 기간에 접어든다.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로 명시한 2단계 개방에서는 관람 제한이 따른다. 공연장 내 객석 거리두기를 띄어앉기를 해야 한다. 거리두기 지침이 시행되면 활용 가능한 객석 수가 많게는 기존의 20% 수준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문화진흥원 문예회관의 객석 거리두기 계획을 보면 대극장은 현행 828석 중에 190석(1층 142석, 2층 48석)만 이용할 수 있다. 170석 소극장은 56석(고정석 26석, 이동석 30석)만 허용된다.

제주시가 관리하는 제주아트센터 대극장은 A형과 B형으로 나뉘 거리두기를 추진한다. 한 줄씩 띄어 앉는 A형은 1184석 중에서 408석(1층 267석, 2층 141석)을 사용할 수 있

는 반면에 앞뒤, 좌우 모두를 띄어앉는 B형은 304석(1층 196석, 2층 108석)만 확보된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2단계 개방 시부터 기존 객석의 25%에서 시작해 코로나 추이를 보며 50%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25%를 적용할 경우 802석의 대극장은 200석(1층 150석, 2층 50석), 190석 소극장은 50석으로 줄어든다.

객석 거리두기는 대관만이 아니라 공연장 자체 유료 기획공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연장마다 관람 인원 제한에 따른 관객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공연을 병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6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3편의 작품을 초청해 2020제주뮤지컬 페스티벌을 이어가려던 도문화진흥원은 재개방이 이루어지면 190석에 한해 유료 무대와 함께 온라인 실시간 공연도 가질 계획이었다. 도문화진흥원은 이번에 재개방 날짜가 연기되면

서 초청 일정 조정, 공연 개최 여부 등 재검토를 받고 있다고 했다.

6월 18일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의 무관중 공연으로 시범 개방을 시작하는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으로 6월 23일 공연되는 ‘빨간 모자와 늑대’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2월 코로나 여파로 연기했던 기획공연 ‘베토벤X클림트-운명의 키스’는 7월 3일로 늦췄다가 재개방 일정에 따라 다시 8월로 날짜를 옮기기로 했다. 서귀포예당은 이 공연에 대해 “객석 수가 줄어들더라도 유료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며 “관람 기회를 얻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온라인 공연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 역시 제주아트센터에서 7월 10~11일 여는 제주도립예술단의 첫 합동 오페라를 오프라인 공연과 온라인 중계를 나란히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살아있는 바닷물에 머문 마음의 풍경

김용주 여덟 번째 개인전
귀향 후 만난 자연 재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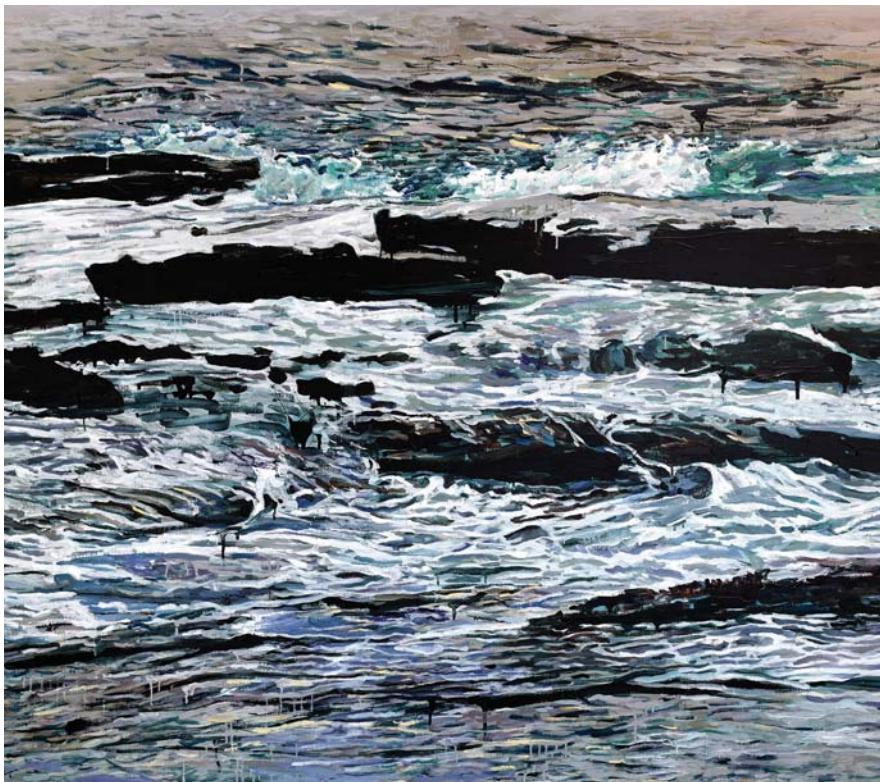
중등미술교사로 근무했던 김용주 작가는 1990년부터 시작된 서울 생활을 28년 만에 접었다. 고향 제주로 온 뒤 ‘나무에 대한 기억’으로 2018년 개인전을 가졌다. 1986년 지금은 사라진 동인미술관에서 열었던 첫 개인전 이후 32년 만이다. 다시 찾은 제주의 바람, 나무, 바다 등이 그에게 더 절실하게 다가왔다. 작가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있었던 자연에서 새삼 제주 사람들의 거친 삶을 봤다. 그가 제주 자연을 또 한번 불러냈다. ‘귀향-자연에서 자유를 찾다’란 이름으로 6월 3일부터 옛 제주대병원

원 예술공간 아아 갤러리에서 여덟 번째 개인전을 펼치고 있다.

김 작가는 제주 자연의 재현에서 벗어나 새롭게 해석하고 그 대상에서 상상되는 것들을 풀어놓았다. 파도치는 제주 바다에 작가의 삶이 투영되는 등 자연과 마음이 잇닿는다.

김경서 평론가는 이번 작품에 대해 “숲과 나무 그림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그리려 한 바다는 바다라는 대상과 인상에 머물지 않는다. 끝없이 흔들리다 일순간 사라지는 자연, 그 들숨과 날숨의 호흡에 맞춰 춤을 추는 내 안의 자연”이라고 했다.

출품작은 ‘살아있는 바닷물’, ‘빛나는 순간’, ‘다시 시작이다’, ‘한동리의 봄’ 등 30점이 넘는다. 전시는 6월 28일까지 이어진다. 전선희기자



김용주의 ‘살아있는 바닷물’.

2년여 공석 제주합창단 지휘자 재공모

24명 응모했지만 ‘부적격’

제주도립 제주합창단 공석이 길어지게 됐다. 제주시는 2018년 4월 전임 지휘자 임기 만료로 자리가 빈 제주합창단

상임지휘자 공개전형 결과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하고 하반기 전국 공모를 다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총 24명이 지원했다. 2월 20일 1차 서류전형에

서 5명을 추려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전형 일정을 연기해오다 지난 5월 28일 실기와 면접 전형을 벌인 결과 최종적으로 적격자를 뽑지 못했다.

제주합창단 상임지휘자는 현재 2년 넘게 부재 상태다.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하더라도 정기연주회 등 정상적 연주활동에 차질이 빚어지

고 있다. 제주시는 “합창단 조직을 잘 이끌며 단원과 소통, 음악적 역량이 뛰어난 우수한 지휘자를 위촉하기 위해 어렵게 내린 결단”이라며 “하반기 공개 전형을 통해 우수한 지휘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선희기자

詩(시)로 읽는 4·3 (61)

각명비

허유미

내려다보면 읽히지 않고
엮드리면 읽히는 이름들이 있다

동에서 서로 기억해야 할지
땅에서 하늘로 기억해야 할지
기억해두기 전 까마귀 울음과
함께
흩어져버릴 것 같은 이름들이
있다
봄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이름들
새벽이면 젖은 몸으로 다시 돌

아와
빈 요 위에 누울 것 같은 이름들
천 개의 손으로 쓰다듬어 읽어
야 할 이름들이 있다
읽고 나면 겨울이 온 육신을 누
른 듯
빠마디가 시린데도 양지로 몸을
돌릴 수 없다

물결처럼 끝없이 밀려오는 이름
들로
4월 풍경이 휘청거린다

역사 이래로 영웅만을 기념하던 인류는 20세기에 이르러서야 민초들의 역사를 기념하기 시작했다. 4·3평화공원은 4·3사건으로 인한 제주도 민간인 학살과 처절한 삶을 기억하고 추념하며,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평화 인권기념공원이다. 무엇보다 희생자 이름이 빼곡하게 새겨진 각명비(刻銘碑)와 위패(遺牌), 시신을 찾지 못해 묘조차 만들지 못한 행방불명인 표석들이 직접 겪어보지 않은 역사임에도 가슴 찢는 아픔으로 다가온다. 얼마나 많은 이름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는지 각명비에 이름이 새겨진 희생자만 무려 1만 4000여 명에 이르고 행방불명인 표석은 3700여 개에 이른다. 실

제 4·3사건으로 희생된 제주도민은 3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희생자의 이름과 성별, 연령, 사망일시 등이 새겨진 각명비를 천천히 지나다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덜컥 멈춰 서는 순간이 있다. ‘○○○의 자’라고 적힌 1세의 남자아이. 세상에 나온 지 며칠이나 됐을까. 이름도 채 가질 새 없이 그대로 하늘나라로 떠나버린 그 아이가 너무나 가여워 쉽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시인 이종형도 그의 시 ‘각명비’ 마지막 연에서 “4·3 평화공원/각명비 위에 내려앉은 산 까마귀 한 마리가/검은 부리로 툭툭,/그 겨울의 이름들을/다시 새기고 있다.”고 읊고 있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문화가 쏙지

탐라문화연구원 학술대회

송악도서관 책 꾸러미 나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원장 전영준)은 이달 5일 오전 9시부터 인문대학 2호관 진양현석관에서 ‘굶다’로 푸는 난민의 출현과 인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예멘 출신 난민인 청자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충북대 서선영 교수의 기조발표를 비롯 삼국시대·고려시대·조선중기의 난민 역사와 함께 난민 개념, 난민의 출현과 대응에 대한 철학적 문제, 월경(越境)의 문학이 논의된다. ‘굶다 인문학’ 페이스북 페이지로도 생중계된다.

송악도서관(관장 양문식)이 ‘2020년 청소년 책의 해’를 맞아 지역의 중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책 꾸러미를 나눠준다.

책 꾸러미 안에는 청소년 환경운동가 톨베리가 쓴 ‘그레타 톨베리의 금요일’, 제리 스피넬리의 ‘하늘을 달리는 아이’가 담겼다. 6월 4일부터 선착순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6월 23일부터 받아볼 수 있다. SNS를 이용해 인상에 남는 책 꾸러미 도서의 구절을 공유하거나 독서모임도 참여할 수 있다. 문의 798-6800.

태양광 주택 | 태양광 발전소 | 전기공사업
벤처 인증 기업 | 인공지능 태양광 제어기술 보유

네이버 검색창에 '나눔에너지'를 입력 하주세요.



제주도 로컬 태양광 강소기업 나눔에너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특별 신상품 출시!

SMP와 REC 판매가격 하락 추세로 사업이 고민되시는 신규 사업주님들을 위한 최적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2020. 04 3년 연속 제주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2019. 06 고용우수기업 선정
한화 Q-CELL 제주도 쿠팡파트너 협력기업
2019. 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02 미국 Pingo Solar 와 기술 협약 체결

기본형

1kW 시공단가
107만원 부터 ~

고급형

1kW 시공단가
112만원 부터~

프리미엄형

1kW 시공단가
117 만원 부터~

(공통 사항: 하자 보증 이행 기간 5년)



나눔에너지

*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주)나눔 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064-745-0420 FAX.070-8812-0420